

사람이 희망입니다.

KRIVET Issue Brief

2016

112호

발행인 이용순 |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한국의 청년 채용시장 I : 서류 전형 단계

- 우리나라 500대 기업은 서류 전형 시 최종학교 졸업시점을 가장 중시하며, 그다음으로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 학교 순서임. 어학능력, 자격증 보유, 경력, 해외취업·어학연수 등의 중요도는 크지 않음.
- 기업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중시하는 졸업시점,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대학 중 어느 하나라도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서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음.
-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입사지원자의 경우, 아무리 다른 스펙이 우수하더라도 서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.
- 직무와 무관한 전공자의 경우, 졸업 평점이 높거나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더라도 서류 통과 가능성이 낮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청년층이 무의미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의 선별기제에 대한 파악이 필요

- 최근 취업 준비 청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을 기업에 드러내 보이려는 스펙 쌓기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9대 스펙¹⁾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음.
- 청년들이 쌓고자 하는 이런 스펙들이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큰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런 상황에서의 무모한 스펙 쌓기 경쟁이라면, 그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적, 사회적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임.
- 이 연구에서는 500대 대기업의 서류 전형 단계에서 어떤 스펙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함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의 「고용주조사」

-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『능력중심사회와 청년 노동시장』에서 실시한 한국의 「고용주조사」
 - 매출액 500대 기업 100개사의 인사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, 4년제 대졸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 전형 단계에서 중시하는 요인을 파악함.
 - 선택형 컨조인트 조사(Choice-Based Conjoint)를 활용하여 기업이 어떤 스펙을 가진 청년을 채용하려고 하는지를 분석함. 이 분석 기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의중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가능함.

〈표 1〉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용된 스펙

항목	속성
최종학교 졸업시점	① 졸업예정자, ② 졸업 후 1년 이내, ③ 졸업 후 1~3년 사이, ④ 졸업 후 3년 이상
전공의 직무적합성	① 직무와 완전히 연관된 전공, ② 직무와 다소 연관된 전공, ③ 직무와 무관한 전공
졸업 평점(4.5점 만점 기준)	① 4.0 이상, ② 3.5 이상~4.0 미만, ③ 3.0 이상~3.5 미만, ④ 3.0 미만
출신 학교	① 상위 10개 대학, ② 서울 소재 대학, ③ 지방 국립대, ④ 지방 사립대
경력(인턴십 포함)	① 1년 이상의 관련 직무 경력, ② 1년 미만의 관련 직무 경력, ③ 관련 없는 직무·직장 경력, ④ 전혀 경력 없음
어학능력	① 상, ② 중, ③ 하
해외취업, 어학연수 등	① 1년 이상, ② 6개월~1년 미만, ③ 6개월 미만, ④ 전혀 경험 없음
자격증 보유	① 직무와 완전히 연관된 자격증, ② 직무와 다소 연관된 자격증 보유, ③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 없음

| 각주 |

학벌, 학점, 토익, 해외연수, 자격증, 봉사활동, 인턴십, 수상경력, 성형

행복한
대한민국을 여는
정부 3.0
[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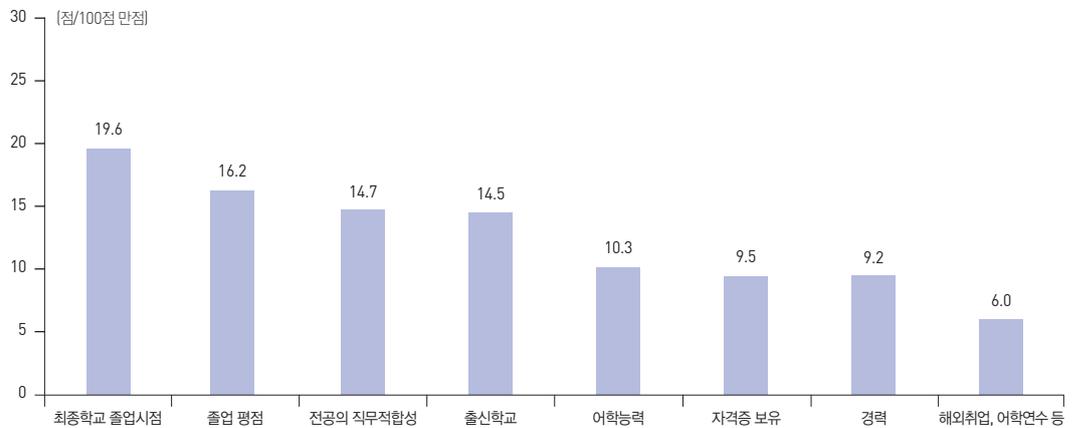


KRIVET 모바일

02 서류 전형 단계에서 중시하는 스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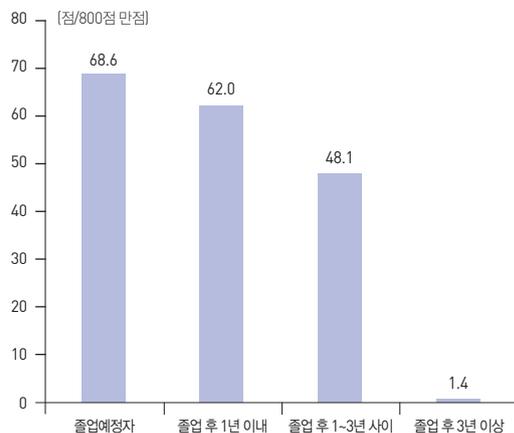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 500대 대기업은 서류 전형 시 졸업시점,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 학교 등을 중시

- 500대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최종학교 졸업시점이며, 그다음으로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 학교 순임.
 - 기업에서는 서류 전형 시 최종학교 졸업시점을 가장 중시하며,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 학교의 중요도는 거의 유사함.
 - 최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서류 전형에서 최종학교 졸업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.
 - 나머지 스펙은 중요도가 낮아 다른 스펙에서 상위 수준에 해당할 경우 상쇄가 가능한 경우도 많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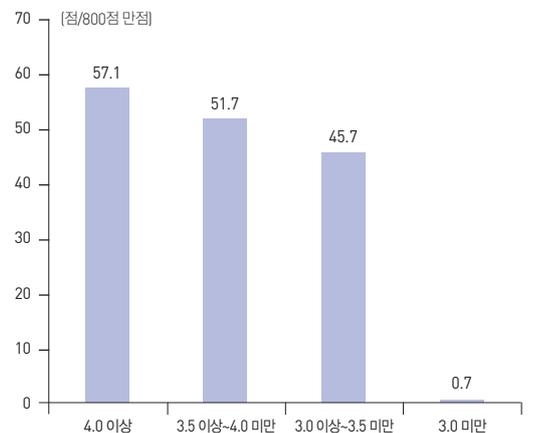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서류 전형 시, 스펙별 중요도

-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자와 선호도가 유사하므로, 사실상 졸업예정자나 졸업 후 경과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지원자들은 채용시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볼 수 있음.
 - 다만,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선호도가 점차 하락하다가 3년 이후부터는 급감함.
- 졸업 평점이 높을수록 기업의 선호도가 올라가지만, 일단 졸업 평점이 3.0점을 상회하면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음.
 - 그러나 졸업 평점이 3.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함.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졸업 평점이 3.0점을 상회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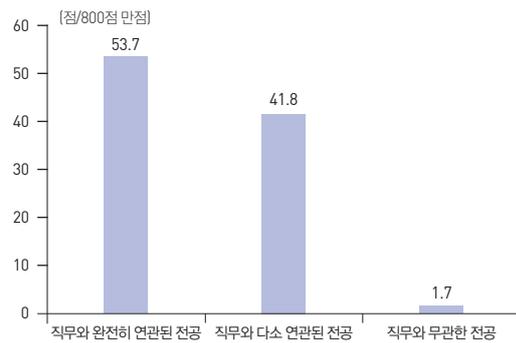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서류 전형 시, 최종학교 졸업시점 선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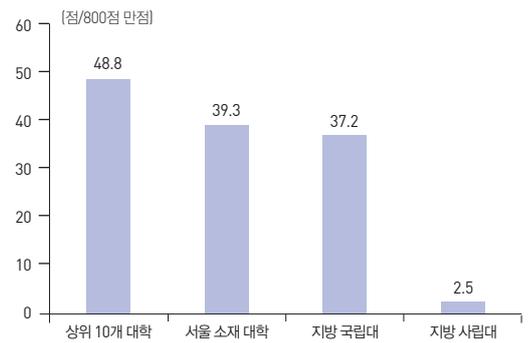


[그림 3] 서류 전형 단계 시, 졸업 평점 선호도

- 전공의 직무적합성 측면에서 기업은 직무와 완전히 연관된 전공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지만, 직무와 조금 연관된 학과라 하더라도 면접의 기회를 갖는 데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 - 그러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전공자의 경우 서류 전형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.
- 출신 학교별로는 상위 10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상위 10개 대학과 다른 대학들 간의 선호도 차이가 큼.
 -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한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국립대 졸업자의 경우 채용시장에서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인식됨.
 - 반면 지방 사립대의 경우 선호도가 매우 낮아, 서류 전형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음.



[그림 4] 서류 전형 시, 전공의 직무적합성 선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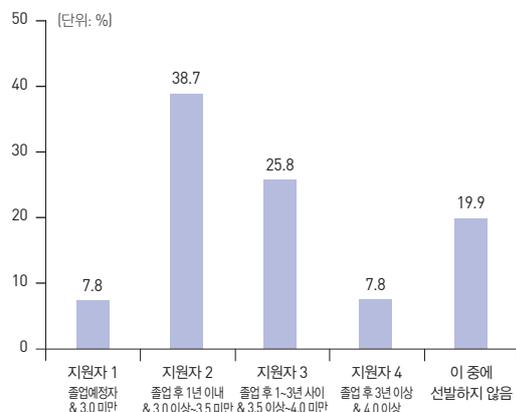


[그림 5] 서류 전형 시, 출신 학교 선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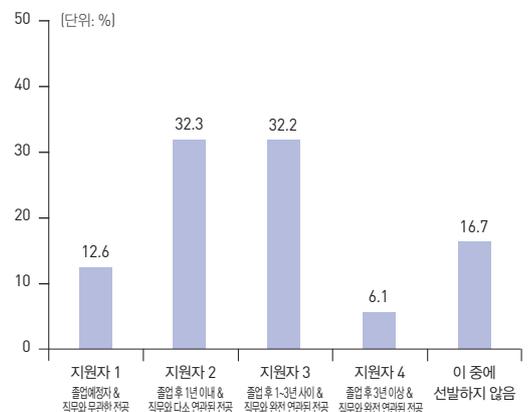
03 서류 전형 단계에서 특정 스펙이 다른 스펙을 상쇄할 수 있는가?

| 졸업시점,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대학 중 어느 하나라도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서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음.

- 졸업 후 3년 이상이 지나 그 자체만으로는 서류 전형 통과가 어려운 입사지원자의 경우, 아무리 다른 스펙이 우수하더라도 졸업시점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어려움.
 - 졸업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지원자의 경우, 졸업 평점이 4.0점 이상으로 높다 하더라도 서류 전형 통과 가능성은 7.8%에 지나지 않음. 이는 졸업 평점이 3.0점 미만인 졸업예정자(7.8%)와 동일한 수준임.
 - 졸업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지원자의 경우, 직무와 완전히 연관된 전공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통과 가능성이 6.1%에 불과함. 이는 직무와 무관한 전공을 이수한 졸업예정자(12.6%)보다 낮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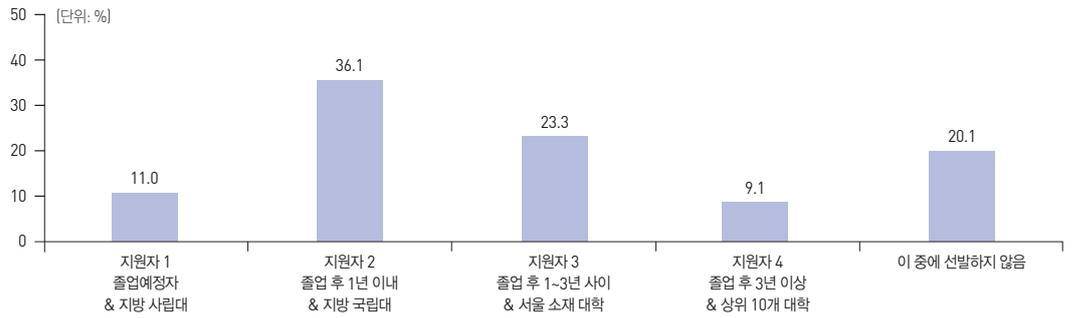


[그림 6] 졸업시점과 졸업 평점의 Trade-off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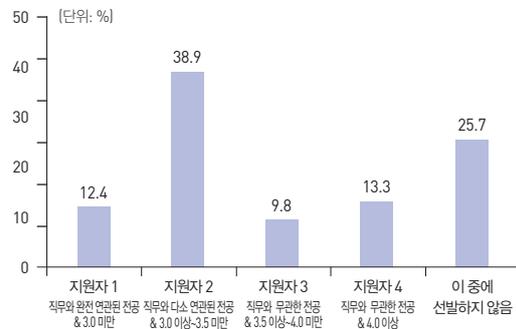
[그림 7] 졸업시점과 전공의 직무적합성의 Trade-off

- 출신대학이 상위 10개 대학이라 하더라도 졸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지원자의 서류 전형 통과 가능성은 9.1%에 불과함. 이는 지방 사립대 출신 졸업예정자의 서류 전형 통과 가능성(11.0%)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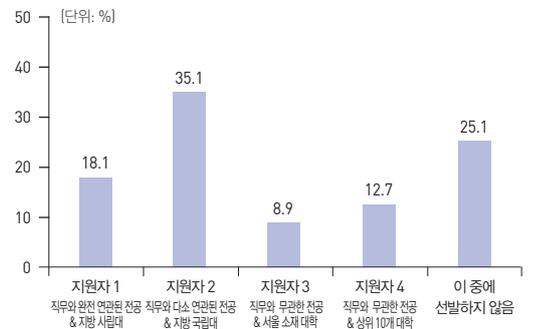


[그림 8] 졸업시점과 출신대학의 Trade-of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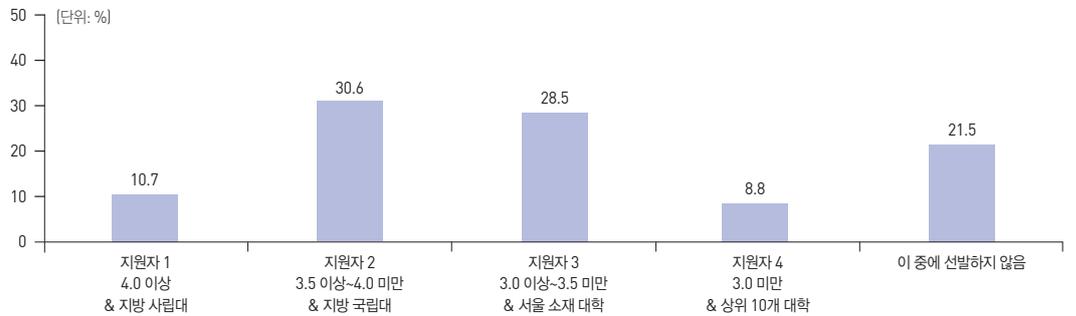
- 직무와 무관한 전공자의 경우, 졸업 평점이 높거나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통과 가능성이 낮음. 졸업 평점이 3.0점 미만인 경우 상위 10개 대학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서류 통과 가능성이 제한적임.



[그림 9] 전공의 직무적합성과 졸업 평점의 Trade-off



[그림 10] 전공의 직무적합성과 출신대학의 Trade-off



[그림 11] 졸업 평점과 출신대학의 Trade-off

04 시사점

- 4년제 대졸자 채용 시 졸업시점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향이 졸업유예의 폐단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,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업의 차별적 채용 관행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.
- 전공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, 현재와 미래의 취업상황에 맞게 대학이 전공 구성을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.
- 지방 사립대의 경우 기업들에 의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므로, 일부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이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(특히 지역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의 강화)이 필요해 보임.
- 졸업시점, 졸업 평점, 전공의 직무적합성, 출신대학 중 어느 하나라도 좋지 않을 경우 500대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,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재차 확인함.

채 창 균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

양 정 승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